

Daniel: 6 – Sermon Notes

Title: “God reveals the meaning to Daniel “

Scripture: Daniel 2:14-23

Date preached: July 14th 2024

<p>Scripture: Daniel 2:14-23</p> <p>14 Then with counsel and wisdom Daniel answered Arioch, the captain of the king’s guard, who had gone out to kill the wise <i>men</i> of Babylon; 15 he answered and said to Arioch the king’s captain, “Why is the decree from the king so urgent?” Then Arioch made the decision known to Daniel.</p> <p>16 So Daniel went in and asked the king to give him time, that he might tell the king the interpretation. 17 Then Daniel went to his house, and made the decision known to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his companions, 18 that they might seek mercies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secret, so that Daniel and his companions might not perish with the rest of the wise <i>men</i> of Babylon. 19 Then the secret was revealed to Daniel in a night vision. So Daniel blessed the God of heaven.</p> <p>20 Daniel answered and said:</p> <p>“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For wisdom and might are His. 21 And He changes the times and the seasons; He removes kings and raises up kings;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ose who have understanding. 22 He reveals deep and secret things; He knows what <i>is</i> in the darkness, And light dwells with Him.</p> <p>23 “I thank You and praise You, O God of my fathers; You have given me wisdom and might, And have now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For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king’s demand.”</p> <p>14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자혜자들을 죽이러 □ □ □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일러 드리이다 하니라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자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 □ □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p> <p>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자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혜자에게 자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자식을 주시는도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 □ □ □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 □ □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자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p>
--

Review

Before we examine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briefly recap what we spoke about last time.

We began chapter number 2 of Daniel.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ave recently completed their three year training period. They proved to be excellent students. In fact the bible tells us that they were ten times better than any other wise man in Babylon. As a result they are now novices employed in king Nebuchadnezzar's palace.

The events that we are reading about here took place in the second year of the king's reign. As I said last time this places us in the year 603 BC.

It was in this year that the king began to experience some troubling dreams. These were much more than just unpleasant nightmares that disrupted his sleep. The recurring dreams that the king experienced left him unable to settle, and plagued both his waking and sleeping hours. As I explained last time ancient people considered dreams to be highly significant. They were seen as the means by which the gods attempted to communicate with people. The more important a person you were the more significant the dream. So a king's dreams were regarded as providing valuable insights. They potentially foretold or predicted future events. So Nebuchadnezzar knew that this dream was not to be ignored. This reality was emphasised to him as the same dream was repeated numerous times. The gods, or in this case God really wanted him to get the message. So Nebuchadnezzar is disturbed. He knows that he will find no peace until an interpretation is provided.

Fortunately for him there are many occult “experts” on hand. He calls the magicians, the astrologers, the sorcerers, and the Chaldeans to him. These men have spent their lives attempting to probe and understand the occult world. In particular the Chaldeans prided themselves on being abl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dreams. They had assembled libraries of books dedicated to analysing dream symbology. They would take the elements mentioned by a dreamer, cross reference them with their books and provide an interpretation. Such things still exist today.

The following comes from the online website “dreamdictionary.org.” I'm not endorsing this website, or encouraging you to trust it as a good place to find answers to your dreams. Far from it. But this is what it says if you have a dream involving a spider.

“When a spider emerges in your dream they conta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elements depending on its behaviour. On one hand you can see this is a powerful omen relating to potential luck, psychic abilities or one's creative side. On the flip side due to its ability to trap its victims in its web and devour them slowly a spider may point to negative or toxic people who pose a threat.”

So there you go. Next time you dream about a spider you'll know what it means.

This is a reflection of what the Chaldeans would have provided the king. A rather vague, ambiguous statement that could be taken in any number of directions. Most likely this had happened to the king several times before which helps explain his mistrust of these “wise men.”

So when they appear before him he breaks with the usual tradition of first telling them his dream and then letting them go away and concoct an interpretation. This dream strikes the king as being particularly significant. Therefore he wants them to tell him what he dreamt, before providing an interpretation. To us today such a request seems unreasonable. But these men remember claimed to have the kind of powers that enabled them to do such things. If they are unable to do this the punishment will be harsh. They will be sent home and not given any dinner. If only, they will in fact be chopped into pieces and their houses burned down.

The Chaldeans are most perturbed. The king is being grossly unfair. No ruler has ever asked them to perform such an impossible feat.

Amazingly they acknowledge that only a divine being has this kind of power. Therefore they

implore the king to tell them the dream first. He will not relent. He wants them to do it all or risk death. Eventually their complaining and pleading infuriate the king. He was a man not exactly renowned for his patience.

He snaps and issues a brutal decree confirming that all the wise men in the city of Babylon and its surrounding environs are to be executed. This decree immediately went into effect. Wise men were arrested and executed.

Soldiers were also sent out to arrest Daniel and his friends. I spent a little time last time speaking about why they were included. They were not present at the palace when the king asked for an interpretation. However they were employed as advisors or wise men who served the king. So this meant that they too were caught up in the decree that commanded all wise men be killed. What will Daniel and his friends do? That will be the subject of our study today.

오늘의 성경구절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 장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메삭, 아벳-네고, 3 년간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학생들이었습니다. 10 배나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된 사건들은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2 년 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는 기원전 603 년입니다.

그 해부터 왕은 괴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잠을 방해하는 단순한 기분 나쁜 악몽 이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왕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깨어 있을 때나 잘 때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인간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 꿈이라고 여겼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꾸는 꿈일 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의 꿈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잠재적으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꿈이 여러 번 반복되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신들이, 특히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메시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불안합니다. 그는 꿈이 해석될 때 까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에게는 많은 마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는 점쟁이, 마법사, 무당과 점성가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마법의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특히 갈대아인들은 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꿈의 상징을 분석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관련된 책을 참조하여 꿈을 해석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dreamdictionary.org"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를 지지하지도 않고 이 웹사이트가 여러분의 꿈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이 거미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거미가 꿈에 거미의 행동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잠재적인 행운, 정신적 능력 또는 개인의 창의적 측면과 관련된 강력한 징조일 수 있다. 반면에 거미는 희생자를 거미줄에 가두고 천천히 잡아먹는 능력 때문에 위협을 가하는 부정적인 가리킬 수도 있다.”

혹시 거미에 대한 꿈을 꾸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준 해석이 아마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해석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왕에게 여러 번 있었을테고, 이로 인해 왕은 “헌자들”을 불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왔을 때 먼저 그의 꿈을 말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이 해석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깨뜨렸습니다. 왕은 이 꿈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하기 전에 그의 꿈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구가 불합리한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종류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가서 밥도 못먹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몸이 조각조각 잘리고 집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은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왕이 매우 불공평합니다. 어떤 통치자도 그들에게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오직 신적인 존재만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에게 그 꿈을 먼저 말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과 탄원은 왕을 화나게 합니다. 왕은 인내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바빌론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모든 현자들을 처형하라는 잔인한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 법령은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현자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체포하기 위해 병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들이 왜 그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약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이 해석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섬기는 조연자 또는 현자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현자를 죽이라는 법령이 그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14 Then with counsel and wisdom Daniel answered Arioch, the captain of the king's guard, who had gone out to kill the wise *men* of Babylon; 15 he answered and said to Arioch the king's captain, "Why is the decree from the king so urgent?" Then Arioch made the decision known to Daniel.

Let us take a moment to set the scene. The king's decree has gone out that all the wise men be arrested and executed. As I mentioned before this seems to have begun immediately. This immediacy meant that the wise men did not have time to flee or try to hide. They were rounded up and killed. Daniel and his friends lived either at the palace itself, or in accommodation provided by the king f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they were unaware of this decree being passed and the great danger they faced they were unable to escape. When Arioch the captain of the king's guards knocked at their door it must have come as quite a surprise.

Imagine how this all played out. Arioch knocks on Daniel's door. When Daniel opens the door Arioch speaks,

"Hello Daniel, sorry to bother you but the king has commanded that you and your friends be executed immediately. I hope you had nothing planned for this afternoon."

It's difficult for us to imagine the shock and horror that must have come over Daniel. And yet as we shall see he does not panic or become agitated. In fact, he presents us with the perfect example of how to handle devastating or life changing news. He remained calm and didn't overreact or get angry. Daniel knew that one wrong word could have proven disastrous, but equally he knew that tactful, persuasive words might pause Nebuchadnezzar's reign of terror, or even end it. Further to this he recognised that resisting arrest would only result in death so instead he used his brain and asked a thoughtful rational question to Arioch.

What kind of man do you think Arioch was? Or let me put it another way. What kind of a soldier do you think would rise up and become captain of the Babylonian king's guards? In a modern situation such a position might be filled by an intelligent, thoughtful even sensitive soldier. A man who cared about his men and sought to do what was morally right. This is unlikely to have been a consideration in the Babylonian army. The Septuagint refers to Arioch as, "The chief butcher." He was the main executioner and his name means "lion." So I'm not exactly picturing a cuddly friendly guy. I'm imagining a tough violent man. A man not afraid to get his sword bloody. Someone who

might even have enjoyed or relished killing. This is the kind of man Nebuchadnezzar would promote to such a post. So his reaction to Daniel is interesting.

Daniel asks him why this decree had come about so quickly. Yesterday these wise men had been in the king's favour, and now today he wanted them all killed. What had turned the king's mind?

Now perhaps the king's decision to do away with the wise men did not surprise Daniel. We know that he was an astute and wise young man. He most likely recognised that many of the so called “wise men” were just tricksters or charlatans who lied to the king for their own benefit or gain. But what puzzled or surprised Daniel was the immediacy and the harshness of the king's decree.

The very fact that Arioch would stop and listen to Daniel is quite revealing. It shows us that Daniel even though young had earned the respect and admiration of others in the Babylonian hierarchy. Arioch was under no obligation to explain what was going on. He had the king's orders to kill Daniel and his friends. However he does not carry out the king's orders and instead tells Daniel what had happened and why the king was so angry.

Let us continue.

14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자혜자들을 죽이러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일대

잠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현자들을 잡아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은 즉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자들이 도망치거나 숨을 시간이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잡혀 처형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 내에서나 아니면 왕이 관리들을 위해 마련한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법령이 통과되었고 그들이 큰 위험에 처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아리옥은 다니엘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다니엘이 문을 열자 아리옥이 말을 합니다.

“안녕 다니엘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왕께서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을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무 계획도 없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느꼈을 충격과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그는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절망적이거나 삶을 송두리째 바꿀만한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완벽한 예를 제시합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과잉 반응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지만, 현명하고 설득력 있는 말이 느부갓네살의 공포의 통치를 멈추거나 끝낼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체포에 저항하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머리를 써서 아리옥에게 사려 깊고 합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리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달리 말하면 어떤 부류의 군인이 바벨론 왕의 경호대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이라면 지능적이고 사려 깊고 세심한 군인이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을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바빌론 군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칠십인역에서는 아리옥을 “도살자 두목 the chief butcher”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요 처형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lion”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아주고 싶도록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느부갓네살은 이런 사람을 근위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이 명령이 왜 그렇게 빨리 내려졌는지 묻습니다. 어제까지는 왕이 이 현자들을 총애하더니 오늘은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이 왕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아마도 현자들을 처형하기로 한 왕의 결정에 다니엘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영민하고 현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현자들” 중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한 것은 왕의 명령이 즉각적이고 가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Daniel's house for him to return. For the three waiting it must have been a very tense and nerve-racking time. If Daniel had failed before the king they would have been instantly arrested and quickly executed.

When Daniel did return I'm not exactly sure they would have been overjoyed by the news. It was true that they had been offered a temporary stay of execution.

But their continued existence depended upon God providing Daniel with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Although they had great faith and trust in God they would never presume to know God's will. It may have been God's will not to reveal this information. If this was the case they had just a matter of hours, or perhaps a day at most to live.

So Daniel shares with his friends what little he knows. The king had experienced some recurring troublesome dreams. His wise men had been unable to tell him the dream or provide an interpretation. This had led to the king becoming angry and passing the decree for all the wise men to be executed.

How wonderful it is to have good friends upon whom we can share our troubles, needs, concerns and burdens. It's comforting to have people who will come alongside and support and encourage you in times of stress and anxiety. I hope you appreciate and value the people in your life who are there to listen, love and help you. If you have not reached out recently to thank or acknowledge a special person then why not do so today. Let them know that you love them and will be there for them when they need you.

I want you now to look carefully at what Daniel and his friends did next. They came together to implore God for his mercy. That's a fancy way of saying they prayed for God's help. Interestingly this is the first instance of united prayer recorded in Scripture.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bible mentions people coming together in a group to pray. When we consider their situation we can appreciate the need to come together and pray like this. They were foreign slaves living in a strange pagan land.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without God's help. They desperately needed Him. Their very lives lay in His hands.

Today living here in safe and prosperous South Korea we are prone to forget just how dependent we remain upon God and His mercy. We tend to think that our wealth and prosperity is a result of our hard work and diligence. We are materially successful because of the efforts we have expended. Sorry to burst your bubble, but that's wrong. Everything you have or own belongs to God. In His goodness and grace He has given it to you. He could if He desired take it back from you. So I encourage you to cultivate an attitude of thankfulness and humility. Try not be so caught up in the material things in life and remember where your real priorities lie.

Daniel and his friends prayer is simple enough. They ask that God show them mercy and reveal the “mystery” or the “secret” of Nebuchadnezzar's dream. The word “secret” used here (*raz*) is used eight times in this chapter. It is the equivalent of the Greek word *mysterion* (“mystery”), which is used twenty-eight times in the New Testament. It means, or refers to “a hidden truth that is revealed only to the initiated.”

This “secret” of course is not hidden from God. He knows all things. They pray that He might reveal this secret to Daniel which will result in them not perishing like the other wise men. The other “wise-men” are wicked occult practitioners who for their evil practices deserved death. Daniel and his friends however have been faithful to God. They have sought to honour Him and please Him with their lives. How will God respond? Let us read on and see.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리에게 그 일을 일리고 18 하늘에 계신 하
□□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자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사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나라**

왕을 접견한 후에 다니엘은 세 친구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공동 숙소에서 다니엘과 함께 살았거나 아니면 다니엘의 집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 친구는 기다리면서 무척이나 긴장하고 떨렸

It is important for us to recognise and understand that the reason God revealed the secret to Daniel all came about as a result of their prayer. We are intended as readers to connect these two events together. Daniel and his friends met and prayed to God, and in His own perfect timing, which in this case was quick God answered.

The “secret” of Nebuchadnezzar's dream was revealed to Daniel in a night vision. I told you befor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 vision and a dream. In case you have forgotten let me remind you. When a person receives a vision they are awake. When God communicates through a dream obviously the person is asleep. Both visions and dreams were common vehicles for divine revelation at this time (Num 12:6). But as I explained in a previous sermon they are not the primary method God chooses to communicate with us today. However in stating this we must also recognise that God may use any method He desires. Today we have God's revelation, the bible to help us discover God's will and desire for us.

Before moving on I want you to carefully note Daniel's response to all of this. That God revealed the dream to him meant that he and his friends would not perish. What a relief this must have been. We might therefore expect him to rush off immediately and tell the king. But this was not his first priority. His number one priority was to go to God and offer him blessing and praise for answering their prayers. This is an important lesson we need to learn. Often when God has shown us His grace in answering our prayers we neglect to either thank Him, or respond appropriately with praise. How ungrateful this makes us. How we must grieve our generous Heavenly Father when we act like this. So let me encourage us all not to fall into this bad habit. Let us learn from Daniel and remember to thank and praise God as the first order of importance.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by looking at verses 20 to 23.

19 아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 보아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성경 본문 사건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추측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고 다음 날 와서 그 꿈을 밝히려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접견한 후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니엘에게 꿈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밀을 알려 주신 것은 그들의 기도의 결과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경 부분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비밀” 이 밤에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환상과 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잊었을 수 있으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환상은 깨어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소통하실 때는 당연히 잠을 자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 당시에는 환상과 꿈 둘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수단이었습니다(민 12:6). 그러나 오늘날에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선택하는 주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알려 주셨으니 그와 친구들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즉시 왕에게 달려갈 거라고 □□□□□□□□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축복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거나 찬양드리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교훈 삼아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20-23 절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 Daniel answered and said:

**“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For wisdom and might are His.**

**21 And He changes the times and the seasons;
He removes kings and raises up kings;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ose who have understanding.**

**22 He reveals deep and secret things;
He knows what *is* in the darkness,
And light dwells with Him.**

**23 “I thank You and praise You,
O God of my fathers;
You have given me wisdom and might,
And have now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For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king’s demand.”**

As we read these wonderful verses of scripture we might note a certain similarity with another genre of writing found in the bible. As I'm sure you have noticed Daniel's words here resemble a psalm. It has even been labelled by some biblical scholars as “Daniel's psalm.”

Daniel demonstrates through his wording, and the structure he employs that he was well acquainted with the hymns of praise recorded in the book of Psalms.

A psalm may be defined as a religious poem or song, often expressing praise, thanksgiving, or petition to God.

That is clearly what we see here. Daniel seems to be imitating a psalm of thanksgiving (see for example Psl 30, 107). Let's look at what he says.

Daniel begins with the proclamation that God's name be blessed forever.

“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The “name” stands in the bible for the nature or revealed character of God. So in praising God's "name," Daniel is celebrating His entire nature and character. To bless is to empower. When it is directed towards God, it means to give thanks, honour, and appreciation to the one true God. So he is praying that God and all He stands for be empowered forever and ever.

He then goes on to acknowledge that all wisdom and might are God's.

For wisdom and might are His.

When it came to wisdom the Chaldeans and the other “wise” men in the king's court were sadly lacking. As sinful, misguided human beings they were limited in what they could know. God has no such limitations He sees, and knows all. This is why God, and only God is the source for all wisdom and truth.

Daniel then goes on to speak about God's sovereignty over the things of this world.

**21 And He changes the times and the seasons;
He removes kings and raises up kings;**

This is a statement of faith that rightly acknowledges that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The word “times” here speaks of a sense of duration. A king or ruler has a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y reign. The length of this time is determined by God. The word “seasons” suggests the appropriate moment for something to happen. All things occur or exist in their appropriate season. A season that is determined by God.

Daniel also acknowledges that God has complete power over the monarchs and nations of the world. Kings or other rulers come and go. Kingdoms and nations rise and fall as God works out His purposes. Human beings make plans but their success or otherwise depends upon God.

Daniel then moves on to spotlight the origin of wisdom.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ose who have understanding.**

In Babylon the “wise men” were regarded as being the source of the nations knowledge and wisdom. They were the people the nation turned to for answers. However it was not uncommon for them to lie and greatly exaggerate the knowledge they had. It was an illusion that they employed for power, prestige and monetary gain. The fact that they lied should be expected. This is because the source of their information was the occult world. As I have pointed out before demons lie because that is their nature. God by contrast is the source of all that is true and wise. He cannot lie. Therefore Daniel acknowledges Him to be the source of all that is true and wise and also recognises that he distributes said wisdom to those who seek to honour and obey him.

Daniel then goes on to extol God's omniscience.

**22 He reveals deep and secret things;
He knows what *is* in the darkness,
And light dwells with Him.**

God know everything.

Nothing is hidden from Him, not even things covered up or hidden by humans. That means that the sin that you do in the dark that you think is known only to you is not a secret to God. God knows what takes place in the darkness even though He dwells in the light. In many Old Testament passages, God is described as being surrounded by light, (Exod. 24:17, Hab. 3:4). In the New Testament this is expressed more clearly. The Apostle Paul writes in his first letter to Timothy,

15 which He will manifest in His own time, *He who is the blessed and only Potentat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16 who alone has immortality, dwelling in unapproachable light, whom no man has seen or can see, to whom *be* honor and everlasting power. Amen. (1 Tim 6:15-16)*

The Apostle John is even more explicit,

This is the message which we have heard from Him and declare to you,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1 John 1:5)

This light is a sign that God is good, right, and holy. Daniel's psalm of thanksgiving concludes with a personal note of thanks and praise.

**23 “I thank You and praise You,
O God of my fathers;**

Daniel addresses his praise to the "God of my fathers." Despite being taken from his home and family as a young boy, Daniel remained faithful to the God of Israel. Even now living in a strange pagan land surrounded by the Babylonian culture he identifies himself as one of the people of Israel. In this way he effectively connects his experience to the Hebrew people of the past.

It's a good reminder to us today that we too stand on the shoulders of all the believers who have come before us. We can take strength and encouragement as we learn and grow from their experiences.

Daniel then acknowledges where his insight and wisdom came from.

You have given me wisdom and might,

It was not because He was a good scholar who had studied hard. These things are significant but the real reason that he had wisdom and might was that God had given this to him. This wisdom is

reflected in his appreciation of the support of his friends.

He did not forget that his companions' prayer was just as effective as his own.

And have now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For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king's demand.”

Daniel avoided the danger of becoming puffed up with pride. He might easily have fallen into the trap of thinking that he was special because God chose to reveal the dream to him. This was not the case. As a humble servant of God, he acknowledged the role of his three friends in the prayer that God answered.

Daniel was confident that the information that God had given him would save their lives. This confidence is testimony to the clarity and obvious supernatural source of this revelation. Daniel knew it had come from God. As a consequence he did not need to contrive an answer that he hoped would satisfy, or please the king. All he needed to do was declare the revelation he had received from the one and only living and true God. That will be the subject of our next sermon.

Let's conclude today by thinking about what we can learn from today's passage.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²¹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 는도다²²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 □ □ □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²³ □ □ 조상들의 하나님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라

우리는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의 어떤 장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시편과 비슷하다고 깨달으셨을 겁니다. 일부 성경 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니엘의 시편 Daniel's psalm” 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이 사용한 표현과 구조를 보면 그가 시편에 기록된 찬양의 시에 대해 익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종교적인 시나 노래로서, 종종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감사 또는 간구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시편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시 30, 107 편 참조). 그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으리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20 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계시된 성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모든 본성과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 to bless 은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과 인정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영원무궁토록 찬송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For wisdom and might are His.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갈대아인과 왕궁에 있는 다른 “한자들”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죄 많고 잘못된 지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언급합니다.

21 And He changes the times and the seasons; He removes kings and raises up kings;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여기서 “때tiems”라는 단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왕이나 통치자는 통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계절 seasons”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날 적절한 순간을 암시합니다. 모든 일은 적절한 시절에 발생하거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절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께 세상의 군주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에 따라 왕국과 국가는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자혜가 어디서 오는 지 밝힙니다.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ose who have understanding.

자혜자에게 자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비블론에서는 “헌자들”이 지식과 자혜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의문이 생기면 그들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거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크게 과장했습니다. 그들은 권력, 명예, 금전적 이득을 위해 허상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정보를 얻은 곳이 마법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마귀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참되고 자혜로운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진리와 자혜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자혜를 주심을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합니다.

**22 He reveals deep and secret things;
He knows what is in the darkness,
And light dwells with Him.**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리고 숨기려고 해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는 죄, 자신만 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죄가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아십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빛에 둘러싸여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됩니다(출 24:17, 히박 3:4). 신약에서는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 □□□□□□ □□ □□ □□□□.

15 가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 보이사라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답전 6:15-16)

□□□□ □□ □□□□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요한1 서 1:5)

빛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시편은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23 “I thank You and praise You,
O God of my fathers;**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 □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다니엘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고국과 가족과 떨어져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현재도 바벨론 문화에 둘러싸인 채 낯선 이교 땅에 살면서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과거의 유대인들과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보다 앞서 간 모든 믿는자들의 덕을 보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서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자신의 통찰력과 자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인정합니다.

You have given me wisdom and might, 내게 자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것은 다니엘이 열심히 노력한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자혜와 능력이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혜는 친구들의 지지를 인정하는 것에 잘 반영됩니다. 그는 친구들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And have now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For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king's demand.**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왕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은 교만으로 우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자기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뜻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를 함께 드렸던 세 친구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이 계시의 명확성과 명백한 초자연적 근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왕을 만족시킬 해답을 고안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음주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운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해 봅시다.

Lesson to learn

I have three lessons that I have drawn from today's study.

저는 오늘 공부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The need for calmness under pressure

Rudyard Kipling's famous poem “If” begins as follows.

“If you can keep your head when all about you are losing theirs...”

How easy it is in times of trouble or crisis to lose our heads and act in unthinking and foolish ways. To make silly, snap decisions that may result in catastrophe. In today's account Daniel and his friends found themselves in a desperate situation. The king's decree was that they should die. It's difficult for us to imagine a more pressured or stress inducing situation. So it would have been quite understandable for Daniel to have lost his head and acted foolishly. He might have tried to fight against his arrest. Or argued vehemently that it was unfair. Both of these actions would have resulted in his death. But this was not what happened. He acted very wisely and sensibly in carefully approaching Arioch and asking what was going on. He then went to the king and asked for some time.

Daniel then provides us a model for how to react when in a stressful situation. Why you might wonder was he able to keep his head in this difficult time? I believe it was because he had full and complete trust in God. He knew that God was in control so therefore he did not need to panic or over-react.

So what should we do when we find ourselves in a difficult or challenging situation? We should follow Daniel's example and try to remain calm and composed. We should carefully think things

through and communicate clearly and precisely with those directly involved. Most importantly we should think about whom, and what we are to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If you have put y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then you are a child of God. That means that as your loving heavenly Father He is looking out for you. There's no need to lose your head and panic.

1 어려움 가운데 침착함을 유지하기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유명한 시 "If"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만약 주변 모든 □□□□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 당신이 정신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정신을 잃고 생각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어리석고 성급한 결정을 내려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보다 더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정신을 잃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저항하거나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격렬하게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행동 모두 죽음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리옥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으면서 매우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는 어떻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알았으므로 당황하거나 과잉반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들과 명확하고 정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The priority of prayer

As we saw in today's account Daniel prioritised the need for prayer. It was the first thing on their "to do list." I think that many believers today do recognise and value the importance of prayer. But I'm not always sure it holds that rightful top spot. I think that too often we think about practical things we can do before turning to prayer. Simply put we tend to think that faith means doing something. But that's the wrong way of looking at things. You see, Prayer is doing something. Prayer makes a tremendous difference. Never forget the amazing fact that the sovereign God has chosen to work in response to the prayers of His people.

Let me give you a familiar scenario to illustrate what I mean. Imagine parents who are awoken at night with a feverish child. What do they do? They grab a thermometer and take the child's temperature. They then apply a cold cloth to the child's head. They check on the internet for ways to lower someone's temperature. They call someone who has some medical knowledge. Eventually they pick up the child and rush them to the ER. What they should have done first was prayed.

Let us then correctly prioritize prayer in our lives.

2 기도가 최우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은 기도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할 일 목록"의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과연 기도가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전

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역사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친숙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열이 나는 아이 때문에 잠이 깬 부모를 □□ □□□□ 그들이 뭘 할까요? 그들은 체온계로 아이의 체온을 잽니다. 그런 다음 차가운 물수건을 아이의 머리에 얹습니다.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확인합니다.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결국 그들은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도록 합시다.

3 The value of community prayer

When faced with a very difficult, and from their perspective unsolvable situation what did Daniel,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do? They got together to pray. They realised that only God had the power to help them.

Although everyone's call to faith in Christ is an individual event we are not supposed to stay as isolated individuals. It is not a biblical idea that we shun collective gatherings and just worship God on our own. No, God calls us into a faith community. We should desire spiritual intimacy with other believers. We call this fellowship. Just like in any human relationship shared time together is like a bond or glue that holds things together. There are many ways this might be achieved. Commonly it is through spending time together after or before worship. It may be cultivated through church outings, trip or special events. And it may be encouraged through praying and praising God together.

Praying together allows us to bare our hearts before the throne of God as a group. It allows us to see different, perhaps unexplored aspects of our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t opens up new ways to see and think about our saviour. It can help rekindle our cold and jaded hearts. It may encourage us to think more about the needs and concerns of others. It helps make us less needy and selfish. So there is much to be gained from praying together.

May we all recognis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communal prayer.

3 연합기도의 가치

그들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니엘 □□□, 메삭, 아벳네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혼자서 고립된 채 지내면 안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영적인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여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서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는 여러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예배 전후에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교회 소풍이나 여행,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룹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보지 못했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세주를 새롭게 보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차갑고 자진 마음을 다시 불붙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대해 더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덜 이기적이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연합기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길 바랍니다.

